

## IAT를 이용한 부모-자녀 관계 만족의 암묵적 측정\*

신 희 천                      한 소 영<sup>†</sup>                      양 욱 석  
아주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이론(Deci, & Ryan, 2000)에서 정신건강에 필수적 영양소라고 보는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 중 부모-자녀 관계 안에서 경험하는 관계성의 만족을 암묵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Karpinski와 Steinman(2006)이 개발한 Single Category Implicit Association Test(SC-IAT)를 이용하여 부모-자녀 관계 암묵적 관계성 만족 척도를 개발하고 대학생 집단으로 설문 및 실험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부모-자녀 관계 암묵적 관계성 만족 척도의 내적 신뢰도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척도의 공존타당도와 예언타당도 검증을 위해 부모-자녀 관계 외현적 관계성 만족 척도를 비롯한 다양한 외현 척도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자녀 관계 암묵적 관계성 만족 척도의 경우, 외현적 관계성 만족척도, 애착척도, 의미미분척도 및 가족관계척도와 적절하게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나, 어머니-자녀 관계 암묵적 관계성 만족 척도의 경우 애착 척도의 하위 요인인 소외감 척도를 제외하고 외현 척도들과의 유의한 상관이 드러나지 않아 관계에 따른 측정치의 분석 결과가 상이한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암묵적 관계성 만족 척도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 제안점 및 암묵적 척도 개발의 의의를 논하였다.

주요어 : SC-IAT, 암묵적 측정, 자기결정이론, 기본 심리적 욕구, 관계성, 부모-자녀 관계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조성 사업비)으로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I-2009-332-H00030).

† 교신저자 : 한소영,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번지  
Tel : 031-219-1963, E-mail : honeycave@ajou.ac.kr

20세기 컴퓨터의 개발과 뒤따른 혁신적인 기술 발전은 1950년대부터 Skinner와 Crowder와 같은 심리학자들에 의해 심리학 서비스에 적극 이용되면서, 과학기술은 점진적으로 전통적인 면대면 상담에 변화를 일으켜 왔다. 비교적 초창기인 1960년대에는 내담자 중심 치료자의 반응을 흉내 낸 엘리자(Eliza)와 같은 프로그램이 시도되기도 하였으며, 70년대 미국에서는 컴퓨터 네트워크가 교육장면에 적극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자조 그룹이 생기기도 하였다(임은미, 2006). 현대에 이르러 컴퓨터를 상담 및 심리학적 서비스에 이용하는 것은 진귀한 것이 아니라(Butcher, Perry, & Hahn, 2004), 오히려 심리치료 및 교육 분야에서 홈페이지나 사이버상담, 온라인 버전의 심리검사를 개발해야 한다는 심리적·현실적 압력이 있을 정도로 당연한 상황이 되었다(임은미, 2006; Casper, 2004).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한 치료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잠재력으로 인해 상당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첫째 치료자와 접촉하는 시간을 감소시키면서도 비용대비 효율적인 심리치료가 가능하다는 점, 둘째, 정규 치료 시간 외의 내담자의 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내담자의 자료 정리가 간편하다는 점이 그것이다(Taylor & Luce, 2003).

다양한 심리학적 서비스 중에서도 특히 심리검사 분야는 전통적인 지필식 자기 보고 측정도구를 신속히 컴퓨터 실시 검사로 바꾸면서 새로운 기술을 가장 빨리 흡수하고 있다.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한 검사는 기존 방식의 심리검사만큼 효과적이면서도(Taylor & Luce, 2003), 피검사자가 민감한 또는 낙인찍힐 염려가 있는 정보(예를 들어 성 행동이나 불법 약물 사용 등)를 제공하는데 있어 면대면

검사보다 더 편안하게 생각함으로써 좀 더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Allard, Butler, Faust, & Shea, 2000). 이 밖에도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검사는 다양한 장점을 지니는데, 컴퓨터에 기반한 기술로 인해 반응 측정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점, 웹으로 제공하는 경우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면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 대규모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검사 채점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Butcher, Perry, & Hahn, 2004). 이러한 장점들에 힘입어 컴퓨터나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는 심리검사는 진로검사(Jones, 1987)를 비롯하여, MMPI/MMPI-2와 같은 성격검사(Butcher, Graham, Ben-Porath, Tellegen, Dahlstrom, & Kaemmer, 2001)나, 신경심리검사(Fray, Robbins, & Sahakian, 1996) 등 정교함을 요하는 검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노동부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같은 국가 기관이나 심리검사 제작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일반적으로 다양한 심리검사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컴퓨터나 인터넷을 사용한 심리측정법 중에서 최근 가장 주목을 받고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암묵적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IAT)이다. IAT는 컴퓨터 자극에 반응하는 속도를 측정함으로써 의식적이고 외부로 드러나는 태도가 아닌, 무의식적이고 내현적인 태도를 측정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최초의 IAT는 Greenwald, Mcghee, 그리고 Schwartz(1998)가 외현적 측정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인종차별과 관련된 암묵적인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하였다. 그러나 IAT가 암묵적인 태도의 개인차를 측정하는 타당

한 도구로서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Greenwald와 Farnham(2000)이 암묵적인 자존감(self-esteem)과 성 자기 개념(gender self-concept)을 측정하는데 성공하면서 부터이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self-other이라는 쌍을 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이나 사물 외에도 자기 자신과 관련된 지각도 측정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IAT가 암묵적 태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Heider(1956)의 균형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Heider(1956)는 심리적 균형을 개인이 지각하는 두 대상간의 유인가와 각 대상과 나와 의 유인가의 곱이 0보다 큰 것으로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내가 남자(⊕)면서 십자수(⊕)를 좋아할 경우, 사회적으로 남자와 십자수가 잘 연합이 되지 않으면(⊖) 나는 불편감을 느낀다(⊕×⊕×⊖=⊖). 이런 식으로 심리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을 연합시키려 할 때 반응에서 오류가 나고 느려지는 현상을 응용한 것이 IAT이다(Greenwald, Banaji, ※, Farnham, Nosek, & Mellott, 2002).

IAT의 원리는 속성과 범주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된다. 뒤섞여 있는 여러 대상들을 두 범주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고 가정해보자. 같은 속성을 가지는 것들끼리 분류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쉽고 빠를 것이다. 예를 들어, 개, 늑대, 고양이, 호랑이 모양의 4 종류의 인형들이 뒤섞여 있을 경우, 같은 개과 동물(개, 늑대)과 고양이과 동물(고양이, 호랑이)로 분류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빠를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정보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애완동물(개, 고양이)과 비애완동물(늑대, 호랑이)로 분류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 즉, 대상의 속성을 분류하는데 있어서는 개인차가 존재하며, 이 때 연합 강도의 차이가 반응 시간으로 나타난다.

이렇듯 자동적 연합강도의 차이로 인한 반응 시간 속도차이가 암묵적 태도의 개인차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Greenwald et al., 1998).

IAT는 검사실시 과정에서 맞고 틀리고의 피드백이 바로바로 주어지고 제한 시간 안에 반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의로 느리게 반응하거나 빠르게 반응하여 조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Greenwald et al., 1998). 하지만 무엇보다 IAT가 다른 암묵적 측정법에 비해서 더 주목받는 이유는 2가지 측면에서 설명된다. 첫째, IAT는 점화(priming)를 이용한 측정에 비해 좋은 신뢰도를 나타낸다(Fazio & Olson, 2003). 또한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다른 심리 검사와 마찬가지로 IAT는 컴퓨터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하며, 많은 표본을 모으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Greenwald, Nosek, & Banaji, 2003). 이러한 장점들을 바탕으로 IAT는 불안(Boschen, Parker, & Neumann, 2007; Egloff & Schmukle, 2002; Schmukle & Egloff, 2006), 공포(Teachman, 2007), 성격(Steffens & König, 2006) 등 상담 및 임상심리학 분야에 응용되어 많은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Bar-Anan, Liberman, & Trope, 2006; Bar-Anan, Liberman, Trope, & Algom, 2007; Haefel, Abramson, Brazy, Shah, Teachman, & Nosek, 2007; Penke, Eichstaedt, & Asendorpf, 2006; Wiers, Van Woerden, Smulders, & De Jong, 2002).

IAT를 이용한 임상심리학 응용 분야의 심리 측정 중 주목할 만한 것은 Schmukle과 Egloff(2006)가 De Houwer(2003)의 Extrinsic Affective Simon Task(EAST)를 확장하고 IAT를 응용하여 Extrinsic Simon Task(EST)라는 기법으로 암묵적인 불안을 측정 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불안과 고요라는 속성의 쌍 각각을 파란색과 녹색에 연합시킨 다음, ‘자기’와 ‘타

인' 쌍의 단어들에 연합된 색을 입혀 제시하고 그 반응 시간을 측정하여 불안을 측정하였다. 즉, 불안한 사람은 '자기'에 불안을 뜻하는 색을 입혔을 때 더 빠르게 반응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 EST는 불안 IAT와는 .2 정도의 상관을 나타내며, 자기보고식 불안 척도와는 유의미하지 않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Teachman (2007)은 IAT를 응용한 GNAT(Go/No-go Association Task)로 거미 공포증의 측정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인 IAT가 두 개의 버튼을 누르는 것에 비해서 GNAT는 단 하나의 버튼만을 사용하여 화면에 제시되는 연합을 보고 누르거나 누르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여 반응 시간을 측정한다(Nosek & Banaji, 2001). 연구결과, 거미공포증을 가진 집단과 아닌 집단을 GNAT를 통해 구분할 수는 있었지만, 공포의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EST와 GNAT는 모두 IAT가 가진 한 번에 한 가지 태도만을 측정하고, 자극이 반드시 쌍을 이루어야 한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IAT의 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밖의 IAT의 변형된 방법으로 조이스틱으로 모니터의 단어를 이동시키는 속도를 통해 측정한 EMA(Brendl, Markman, & Messner, 2005), 속성 자극을 짝이 아닌 한쪽만 이용하여 측정하는 Single-Attribute Implicit Association Tests(SA-IAT; Penke et al., 2006), 표적 자극을 쌍이 아닌 한쪽만 이용하여 측정하는 Single Category IAT(SC-IAT; Karpinski & Steinman, 2006) 등이 있다. 특히 SC-IAT는 표적 대상이 쌍을 이루지 않고 하나만 제시되기 때문에 표적에 대한 상대적인 측정치가 아닌 절대적 측정치를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콜라 선호도를 측정한다고 가정하면, 일반적인 IAT로는 펩시와 코카콜라

중 상대적으로 어느 쪽을 더 좋아하는지만 측정할 수 있으나 펩시와 코카콜라 각각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SC-IAT는 표적과 속성이 쌍을 이루어 펩시에 대한 선호도와 코카에 대한 선호도를 각각 측정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SC-IAT는 그 신뢰도가 기존의 IAT와 유사하며, 타당도도 실험을 통해 우수한 것으로 검증이 되었다. 또한 IAT가 7개의 블럭으로 구성된 것에 비해, SC-IAT는 단 4개의 블럭만으로 구성되어 훨씬 간편하고 빠르게 측정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Karpinski & Steinman, 2006).

그런데, IAT와 같은 암묵적 측정방법은 상담 및 심리치료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검사나 평가와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갖는가?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심리척도들은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척도를 만드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가 정확히 판단하여 수치화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검사결과가 타당하려면 피검사자가 솔직하게 응답해야 하는데 사회적으로 바람직해 보이려는 경향으로 인해 검사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Kernis와 Paradise(2004)는 자존감을 암묵적 방법(IAT)과 외현적 방법(Rogenberg의 자기존중감 척도) 두 가지로 측정하였는데 암묵적으로 측정한 자존감과 외현적으로 측정한 자존감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ernis와 Paradise는 특히 암묵적 자존감이 낮고, 외현적 자존감이 높게 나온 경우, 부정적 자기-관련 정보에 의해 쉽게 위협받는다라는 연구결과를 보고하면서 이를 '취약한 자존감'으로 명명하였는데, '취약한 자존감'을 보이는 사람은 부정적 평가에 방어적으로 반응하며, 분명한 위협이 없을 때

도 방어적인 자기-증강 전략을 사용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측면은 사회적 바람직성 때문에 왜곡되는 기존의 외현적 측정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을 암묵적 측정으로 포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사회적 바람직성은 외현적 측정과정에 문화적인 영향이 부가되어 나타난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Schmitt와 Allik(2005)은 검손을 중요시하는 유교문화권에서는 서구 문화권보다 외현적 자존감에서 낮은 평균과 편차가 측정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외현적 척도는 피검자의 의식적인 측면만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제한점(introspective limitation)을 지닌다(Kim, 2004). 또한 자기 보고식 척도에서는 검사 실시 당시의 일시적 상황이 검사결과에 반영되는 맥락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Schwarz & Strack, 1999), 예를 들어 Schwarz와 Clore(1983)는 주관적 안녕감을 자기 보고식으로 측정하는 연구에서 물리적 주변 환경과 응답자의 그 당시 기분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외현적 심리측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적 방법이 암묵적 측정방식이다. 암묵적 측정은 정보 처리 과정에서 인지적 연합망의 자동적 활성화를 이용하므로(방희정, 조혜자, 조숙자, 김현정, 2005), 피검자는 암묵적 측정의 인지적·정서적인 과정을 보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측정 과정이 참가자들이 의식 밖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Nisbett & Wilson, 1977). 따라서 IAT와 같은 암묵적 측정은 사회문화적 압력이 작용할 수 있는 태도를 측정하는데 개입될 수 있는 사회적 바람직성의 문제를 배제하고, 응답을 의도적으로 조작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문화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보다 정확한 태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인종차별과 같은 부

정적이긴 하지만 실재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인종에 대한 태도를 외현적 척도로 정확하게 측정하기란 어려울 것이며,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Greenwald 등(1998)이 IAT를 이용한 암묵적 측정을 개발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변인의 측정에서는 사회적 시선이나 체면 그리고 가족주의가 중시되는 문화적 맥락(장성숙, 2003)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석재와 최상진(2001)은 체면이 한국인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자아 존중감, 통제성향,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안근석(2000)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체면요구수준이 높은 사람, 즉 체면을 지키려는 것에 민감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자기 노출수준이 더 낮은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동양 문화권에서 가족 관계, 특히 부모-자녀 관계에 관련된 만족감을 외현적 척도로 측정할 경우, 의식적 및 무의식적인 과정에 의해 그 반응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조숙자, 방희정, 조혜자 및 김현정(2006)은 사회적 맥락이 강조되는 관계적 자아에서 자아의 모습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음을 강조하면서, 친밀한 관계와 실리적인 관계에서 외현적 및 암묵적 측정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외현적 측정과 암묵적 측정 간에는 상관이 높지 않아, 외현적 측정과 암묵적 측정의 측정차원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암묵적 측정과 외현적 측정간의 차이는 “자기 지시적”인 것이 발달 목표가 되는 서양보다 “바르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 발달목표가 되는 동양(O'Reilly, Tokuno, & Ebata, 1986)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모-자녀 관계 관련 심리 측정에서 암묵적 측면을 측정하는 것이 외현적 측

정방법에만 의존할 때보다 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부모-자녀 관계에서 일어나는 감정, 의사소통, 욕구 등의 심리적 요인들은 한 사람의 인생에 걸쳐 심리적 안녕감이나 행복감에 큰 영향력을 행사(이근후, 박영숙, 문홍세, 1999; 장휘숙, 2007)한다는 점에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정확한 탐색과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긍정심리학의 발전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자기결정이론(Deci & Vansteenkiste, 2004; Ryan & Deci, 2001)에서는 인간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인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가 만족되어야 심리적 건강이 유지되고 잠재력이 최상으로 발휘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가 충족되는 사회적·환경적 맥락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면서 양육자, 즉 부모가 제공하는 사회적 맥락에서의 기본 심리적 욕구의 충족을 강조하고 있다(Ryan, 2005).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는 물리적·사회적 세계에서 최상의 도전을 실행하고 숙달 경험을 추구하거나 효능감을 경험하고자 하는 유능성(competence), 애착을 추구하고 안정감, 소속감 및 타인과의 친밀감을 경험하려하는 관계성(relatedness), 타인의 통제를 벗어나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조직화하여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자율성(autonomy)을 말한다(Deci & Ryan, 2000).

친밀한 관계 특히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세 가지 욕구의 만족은 애착이론(Bowlby, 1969)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민감한 양육자는 아이에게 주체적으로 행동한다는 느낌을 주고, 아동의 활동에 적절한 반응을 하여 아동의 효능감과 자신감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또한 민감한 양육은 온정, 사랑, 양육에 필요한 영양분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는 바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지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안정적 애착을 형성하는 양육자란 아동의 기본적 심리적 욕구를 만족하는 방향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된다(La Guardia, Ryan, Couchman, & Deci, 2000). 그러므로 애착이론과 자기결정이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안정적으로 애착이 형성되었는지 여부, 또는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가 충족 혹은 충족되지 못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러한 관계 경험이 최적의 기능, 심리적 통합과 안녕감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수동성, 불행감, 자기파편화나 기능저하를 일으킨다고 예측할 수 있다(Deci & Vansteenkiste, 2004). 다양한 자기 결정 이론 연구에서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와의 관계에서 기본 심리적 욕구의 만족여부가 자녀의 안녕감과 적응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기본 심리적 욕구와 관련된 부모의 태도가 학업수행(Chirkov & Ryan, 2001), 안녕감(La Guardia et al., 2000), 과학프로그램의 지속적 참여(Ratelle, Larose, Guay, & Senecal, 2005), 심리 사회적 기능(Soenens, Vansteenkiste, Lens, Luyckx, Goossens, Beyers, & Ryan, 2007), 자율적인 자기 조절과 안녕감과 불행감(Niemiec, Lynch, Vansteenkiste, Bernstein, Deci, & Ryan, 2006)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 증명되는 등, 일관성 있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자기결정이론에서는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가 모두 중요하며, 균형 있게 충족되는 것이 중요하다(Deci & Ryan, 2000; Sheldon & Niemiec, 2006)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부 연구들에서는 관계성의 만족, 즉 온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지적인 대인관계가 심리적 안녕감에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Argyle(1987)은 행복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

인 중에서 관계성이 최상위 요인인 것을 발견하였으며, Drigotas와 Rusbult(1992)은 연인관계 유지에 있어 관계성의 욕구와 관련되는 다섯 가지 욕구, 즉 친밀감의 욕구, 동반자 욕구, 성적 욕구, 안정감 욕구, 정서적 관여의 욕구가 관계 지속에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Prager와 Buhermester(1998)는 237가지의 인간 추동욕구를 분석하여 주도성(agentive), 사회성(communial), 생존(survival) 욕구의 세 가지 차원의 19가지 기본적 욕구를 발견하였다. 연구자들은 친밀감이 주도성 욕구와 사회성 욕구 충족을 예측하고 이것이 다시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함을 검증하였는데, 여기서 친밀감과 사회성 욕구가 모두 관계성과 유사한 개념임을 고려해보면 관계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Ryan, La Guardia, Solky-Butzel, Chirkov와 Kim(2005)의 연구에서 정서적 의존성, 즉 관계성은 기본 심리적 욕구를 지지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크게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안녕감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a Guardia 등(2000)은 애착에서 이야기하는 1차 양육자의 민감성과 반응성이 자기결정이론의 관계성과 직결된다고 보았는데, 초기에 형성된 애착이 이후 성인기에 대인관계 기능에서 타인의 지지를 얻거나 긍정적인 정서가 주를 이루는 대인관계를 맺거나, 친밀감, 헌신 및 상호의존(Butzel & Ryan, 1997; Collins & Reads, 1990; Shaver & Hazan, 1993, Simpson, 1990)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양육자, 즉 부모와의 관계에서 기본 심리적 욕구인 관계성의 만족 여부가 이후 성인기 대인관계에서의 관계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관계성은 특히 개인주의 문화인 서양보다 집단주의 문화인 동양에서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Sheldon, Elliot, Kim과 Kasser(2001)은 미국인과 한국인을 대상으로 만족스러운 사건과 관련된 욕구를 비교하였는데, 미국인은 자존감 충족과 관련된 사건을 가장 만족스럽게 지각하였으나, 한국인의 경우 관계성 충족과 관련된 사건을 가장 만족스럽게 지각하여 그 중요성을 다르게 보았다. 한소영과 신희천(2007)의 연구에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세 가지 욕구 중 남자와 여자, 기혼커플과 미혼커플 모두 관계성을 가장 중요한 욕구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나, Kwan, Bond와 Singelis(1997)의 연구에서 개인주의 문화에서보다 집단주의 문화에서 관계 조화가 삶의 만족이나 자존감을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Sheldon 등(2001)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동양문화에서의 관계성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이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기결정이론 연구에서 어른과의 관계에서 관계성이 충족된다고 느끼는 중국 아동들은 자신이 신뢰하고 가깝게 여기는 성인이 자기 대신 선택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 자율성이 침해되었다고 여기지 않는 것(Bao & Lam, 2008)이나, 서양으로 이주한 중국인들이 관계성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자율성이 충족되지 않아 나타나는 우울증이 더욱 심각해지는 결과(Vansteenkiste, Lens, Soenens & Luyckx, 2006)를 보이는 것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과 같은 집단주의 문화에 속해있는 한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동양문화에서의 관계성 욕구 만족과 정신건강 및 심리적 안녕감 간의 깊은 관련성을 고려해 볼 때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관계성 욕구 만족의 암묵적 측정은 더욱 중요할 수 있다. 자율성보다는 부모와의 끈끈한 유대감을 강조하는 집단주의 문화(Markus & Kitayama, 1991)에서는 자율성보다는 관계성이 정신건강에 더 강력한 요인일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체면과 보이는 것이 중요한 한국에서는(이석재, 최상진, 2001; 장성숙, 2003)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관계성 욕구를 외현 척도로 측정하는 경우 그 결과가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율성이나 유능성과는 달리 관계성은 암묵적 측정에 필요한 분명한 속성자극을 만들 수 있어 비교적 쉽게 IAT 문항을 구성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연구자들은 자기 결정 이론(Deci & Ryan, 2000)에서 주장하는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 중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관계성 만족을 암묵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자하였다. 또한, 암묵적 관계성 만족과 외현적 관계성 만족, 애착, 심리적 거리와의 관련성을 보아 암묵적 측정도구의 공존타당도를 검증하고, 가족관계와 주관적 안녕감의 상관분석을 통해 예언타당도를 살펴보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심리적 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성'의 내용을 수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의미미분법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는데, 이를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지각 측정에 사용하는 경우 그 가족 구성원에 대한 심리적인 거리감 또는 가까운 정도, 즉 관계성을 측정할 수 있다(최연실, 1993). 본래 심리적 거리는 Osgood, Suci와 Tannenbaum(1957)가 심리치료 분야에서 가족조각기법(Simon, 1972)이나 가족 인형배치 기술(Gerber & Kaswan, 1971) 등으로 측정되던 심리적 거리감을 자기보고형식의 객관적 척도로 고안한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김재은(1974)이 번안한 의미미분척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가족관계의 응집력이나 적응력과 같은 가족관계의 건강함 여부나 생활만족도를 예측하므로(노영남, 1982; 최연실 1993), 가족관계를 예언타당도의 준거로 사용하였다. 가족관계척도는 국내 가족관련 연구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척도 중 하나인 '가족관계척도'(양옥경, 2001)를 재분석하여 축약한 것(양옥경, 김연수, 2007)을 사용하였다. 애착척도의 경우, 다양한 애착척도 중(Bartholomew, & Horowitz, 1991; Brennan, Clark, & Shaver, 1998; Collins & Read, 1990; Griffin & Bartholomew, 1994; 김광은, 2005; 정연옥, 2005)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각각 측정할 수 있는 부모 및 또래 애착척도(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R)을 사용하였다. 연구자들은 선행 연구 결과들(Greenwald & Farnham, 2000; Karpinski & Steinman, 2006; Schmukle & Egloff, 2006)을 바탕으로 암묵적 측정척도가 외현 척도와의 상관분석에서 약한 상관(.20 ~ .30)을 보일 것이라 예상하였다.

## 방 법

### 대상

조사 대상은 경기도 소재 A대학에서 심리학 전공과목 2개 반의 수업을 듣는 수강생 총 118명 대상으로 하였다. 참가자는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추가학점과 A4용지 250매를 받았다. 111명은 PC실에서 집단으로 실시하는 설문 및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단체 실시 일정



에 맞출 수 없었던 7명은 개별적으로 시간 약속을 하여 단독으로 실험에 참여하였다. 수집된 SC-IAT 자료 중 바이러스 감염, 컴퓨터 오류 및 참가자의 실수로 인하여 자료가 사라진 3명, 오류 반응의 비율이 20% 이상인 3명, 가족관계에서 한부모 및 양부모 사망자 3명을 제외하고 총 109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들어갔다. 부모와 함께 살면서 통학을 하는 참가자는 전체의 56명(51.40%)이었으며, 기숙사에 거주하거나 하숙을 하여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는 52명(47.70%), 무응답이 1명(0.90%)이었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 33명(30.30%), 여자 76명(69.70%)이었다. 이들의 연령은 최하 18세에서 최고 27세(SD = 2.00)였으며, 평균 연령은 21.17세였다.

#### 절차

연구자들은 수업시간에 실험참여자들을 모집하고 미리 정해진 집단 실험 시간을 제시하여 원하는 시간에 실험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집단 실험 시간에 참여가 불가능한 사람들 중 참여의사가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시간을 정하였다. 예정된 시간에 참여한 집단 참가자들은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 준비된 자리에 앉아서 외현 척도로 구성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모든 참가자들의 설문작성 완료가 확인되면, 진행자는 연구에 대한 소개와 간단한 설명을 하였다. 연구자들은 SC-IAT에 대한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연구와 관련 없는 간단한 예(가족과 악당이 있는데 아빠가 제시되면 어느 쪽에 반응해야죠?) 또는 ‘포유류와 조류가 있는데 박쥐가 제시되면 어느 쪽에 반응해야죠?’ 등과 같은 질문을 들었으며,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할 것과, 반응이 늦을

경우 오답 처리됨을 알렸다. 일단 실험을 시작하면 전화를 받거나 중간에 멈출 수 없으며 자신의 실험이 끝나더라도 다른 참여자의 실험참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소음을 자제하고 모든 사람이 실험을 마칠 때까지 실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음을 공지한 다음, 화면에 미리 제시되어 있는 간단한 설명을 읽고 각자가 준비가 되면 시작하라고 지시하였다.

참가자들은 양손을 키보드의 ‘z’와 ‘(키패드 의)2’에 고정시키고 스페이스바를 눌러 시작하였다. 블럭과 블럭 사이에는 한 블럭이 끝났음을 알리는 글과 다음 블럭에 대한 간략한 설명(‘연습단계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은 실험 단계입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스페이스바를 눌러 시작해주시시오.’)이 제시되었다. 모든 실험이 끝나면 화면에는 실험이 끝났으며, 진행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조용히 대기하라는 내용의 글이 제시된다. 모든 참가자들의 시행이 끝나면, 진행자는 실험이 끝났음을 알리고 그 자리에서 보상물을 제공하였다.

개인별로 실험한 참가자의 경우, 단독으로 실시하여 다른 참여자의 설문 작성이나 실험 완료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사용한 컴퓨터의 사양이 실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달랐다는 점을 제외하면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총 설문 및 실험시간은 약 45분~50분이었다.

#### 측정도구

##### 부모-자녀 관계 암묵적 관계성 만족 척도

부모를 나타내는 표적 자극과 관계성을 나타내거나 관계성에 반대되는 형용사인 속성간의 연합을 컴퓨터 스크린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반응속도를 측정함으로써 부모와의

표 1. SC-IAT의 블럭에 따른 자극제시 구성

블럭	시행횟수	좌측('z'로 반응)	우측('2'로 반응)
1	17	따뜻한+아빠(엄마)	차가운
2	51	따뜻한+아빠(엄마)	차가운
3	17	따뜻한	차가운+아빠(엄마)
4	51	따뜻한	차가운+아빠(엄마)

관계에서 암묵적인 관계성의 만족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이 척도는 연구자들이 Karpinski와 Steinman(2006)이 개발한 SC-IAT을 응용하고 심리학 실험자극 제작 소프트웨어인 E-Prime (Schneider, Eschman, & Zuccolotto, 2002a, 2002b)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측정을 위해 Pentium 3.0, 1G ram PC(집단참여) 또는 AMD 4000+, 2G ram PC(개인 참여)와 15인치 LCD 모니터와 108key 키보드를 사용하였으며 자극제시 방법과 블럭 설계는 Karpinski 등(2006)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다.

실험은 총 4번의 블럭으로 구성되며, 17회의 자극이 제시되는 블럭 1과 블럭 3은 연습 시행으로 제외하고, 51회로 자극이 제시되는 블럭 2과 블럭 4의 자료만 분석하였다. 블럭 1과 2는 좌측상단에 작은 글씨로 '아빠' 또는 '엄마'가 '따뜻한(관계성의 속성)'과 함께, 우측상단에는 '차가운(관계성의 반대속성)'이 제시되며, 블럭 3과 4에서는 우측상단에 작은 글씨로 '아빠' 또는 '엄마'가 '차가운'과 함께, 좌측상단에는 '따뜻한'이 제시되었다. 참가자들은 정중앙에 큰 글씨로 무작위 제시되는 부모 표적 자극이나 9쌍(18개)의 관계성 속성 자극이 상단의 좌측 또는 우측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 키보드의 z키나 2키로 반응하였다(그림 1, 표 1). 부모 표적자극과 관계성 및 관계성 반대 속성자극으로 사용한 형용사들은 표 2와

같다.

만족감의 측정 원리는 표준 IAT와 동일하다. 즉, 양립불가능한 조건 하에서 반응 속도가 양립가능한 조건 하에서의 반응속도에 비해 느리고, 양자 간의 차이(양립불가능한 조건 하에서의 반응속도 - 양립가능한 조건 하에서의 반응속도)를 확인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만족감을 측정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림 1의 '가'와 '나'를 살펴보면, '가'의 경우에는 '아빠'라는 대상이 '따뜻한'이라는 속성과 연합되어 있으며(일반적으로 양립 가능한 조건), '다'에서는 '아빠'라는 대상이 '차가운'이라는 속성과 연합되어 있다(일반적으로 양립불가능한 조건). 만약 참가자가 '아빠'라는 대상과의 관계에서 만족감을 경험하고 있다면 연합의 용이성으로 인해 '가'의 화면을 보고 좌측 'z' 키로 반응하는 것이 쉬울 테지만, '다'의 화면을 보고 우측 '2'로 반응하는 것은 쉽지 않고, 이에 따라 반응속도는 '가'의 경우보다 느려졌다. 즉, '다' 조건하에서 반응속도와 '가'에서의 반응속도가 차이가 났다. 물론 아빠와의 관계에서 만족감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가'의 화면에서 좌측 'z'키로 반응하는 것이 쉽지 않고, '다'의 화면에서 우측 '2'키로 반응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므로 둘 간의 반응속도 차이는 별로 나지 않았다. '나' 혹은 '라'의 화면이 제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빠'라

는 대상자극이 좌측의 관계성 속성과 연합된 경우가 우측의 관계성의 반대 속성과 연합된 경우보다 빠른 반응속도를 보였다. 따라서 대상이 관계성의 반대 속성(차가운)과 연합된 블록 4에서의 반응속도에서 대상이 관계성의 속성(따뜻한)과 연합된 블록 2에서의 반응속도를 뺀 수치는 대상과 관계성의 연합강도의 크기, 즉 대상에 대해 관계성 만족감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를 나타내었다.

자극이 제시되는 바탕화면은 검은 색이며,

화면에 제시되는 글자들은 흰색 굴림체로 제시되었다. 반응은 키보드의 '1'과 '2'만으로 반응한다. 반응이 정답인 경우 화면의 정중앙에 밝은 녹색의 'O'가, 오답의 경우 붉은색의 'X'가 150ms 동안 제시되었다. 모든 반응은 1500ms의 제한 시간이 있으며, 제한 시간 안에 반응하지 못하면 오답으로 처리되었다. Karpinski와 Steinman(2006)의 연구에서는 무응답 처리될 경우 더 빨리 반응 해달라는 메시지를 제시하였으나, 예비실험 결과 E-prime으

블록 1과 2의 자극 제시방법	블록 3과 4의 자극 제시방법
가. 좌측 상단에 '아빠(엄마)'와 '따뜻한'이 연합되고 가운데 속성자극이 제시된 경우의 예	다. 우측 상단에 '아빠(엄마)'와 '차가운'이 연합되고 가운데 속성자극이 제시된 경우의 예
	
나. 좌측 상단에 '아빠(엄마)'와 '따뜻한'이 연합되고 가운데 표적자극이 제시된 경우의 예	라. 우측 상단에 '아빠(엄마)'와 '차가운'이 연합되고 가운데 표적자극이 제시된 경우의 예
	

그림 1. 모니터에 제시되는 자극의 예

로 제작된 프로그램 상에서 컴퓨터의 자극제시가 약간 느려지는 오류가 생겨 바로 오답으로 피드백을 제시하도록 수정하였다. 이러한 제한 시간을 넘긴 반응의 경우 화면 피드백에서는 ‘오답’으로 제시하였으나 정확한 자료의 분석을 위해 실제 데이터 처리 시에는 무응답으로 처리하였다.

블록에 따라 좌측과 우측상단 한편의 표적 자극과 속성자극 연합에만 반응하는데서 발생할 수 있는 좌우편향을 방지하기 위해 정중앙에 제시되는 표적과 속성자극의 비율을 조절하였다. 즉, 좌측상단에 따뜻한+아빠(엄마) 자극이 연합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정중앙에 나타나는 부모 표적자극, 관계성 속성자극, 관계성반대 속성자극이 각각 5: 5: 7의 비율로 모니터 화면에 제시되었다(블럭 1과 2). 반면 우측상단에 차가운+아빠(엄마)가 연합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정중앙에 나타나는 부모 표적자극, 관계성 속성자극, 관계성반대 속성자극이 각각 5: 7: 5의 비율로 모니터 화면에 제

시되었다(블럭 3과 4). 이러한 자극 제시 비율로 인해 블럭 1과 2에서는 ‘2’키가 정답 반응인 경우가 59%이며, 블럭 3과 4에서는 반대로 ‘2’키가 정답 반응인 경우가 59%가 된다. 피험자들의 키보드 반응 속도와 정답여부로 만족감을 측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관계성 만족감의 점수는  $d$  값으로 환산되며,  $d$  값이 클수록 암묵적 관계성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보였다.

관계성의 속성을 나타내는 9쌍의 단어는 심리학 관련 수업을 듣는 54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계성의 정의를 설명하고 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형용사 또는 명사와 이에 반대의 뜻을 가진 형용사 또는 명사를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과 연구자들이 부모-자녀 관계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의 관계성 요인 문항을 참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토의를 통해 선별하였다. 본 연구에서 SC-IAT의 내적신뢰도는 아버지 .85, 어머니 .86으로 나타났다.

표 2. 부모 표적자극과 관계성의 속성자극

자극제시위치	부모 표적자극		관계성 관련 속성자극	
	아빠	엄마	따뜻한 (관계성 차원)	차가운 (관계성 반대 차원)
좌우상단      모니터 정가운데	아빠가	엄마가	관심 받는	무관심한
	아빠의	엄마의	사랑하는	미워하는
	아빠를	엄마를	가까운	먼
	아빠와	엄마와	친밀한	거리감 있는
	아빠에게	엄마에게	유대감	단절된
			지지하는	거부하는
			안정감	불안정감
		좋아하는	싫어하는	
		보살피는	무신경한	

**부모-자녀 관계 외현적 관계성 만족 척도:**

한소영과 신희천(2009)이 개발한 부모-자녀 관계 기본 심리적 욕구 척도 18문항 중 관계성 하위요인을 사용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각각 6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응답자들은 각 진술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1점(전혀 아니다)에서 7점(매우 그렇다)사이의 Likert 척도 상에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욕구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소영과 신희천(2009)의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아버지 .95, 어머니 .9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97, 어머니 .95로 나타났다.

**부모애착척도**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정한 부모, 또래 애착척도 개정판(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R)을 옥정(1998)이 번안하고 한국화한 한 부모또래애착척도(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Revised Version; IPPA-R)를 사용하였으며 이중 부모에 대한 애착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각각 25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Likert 척도로 제시된다. 하위척도는 부·모 동일하게 신뢰감 요인 10문항, 의사소통 요인 9문항, 소외감 요인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옥정(1998)의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는 부 애착 .93, 모 애착 .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부 애착 .88, 모 애착 .82로 나타났다.

**의미미분척도**

부모와의 심리적 거리감 측정을 위하여 Osgood, Suci와 Tannenbaum(1957)이 개발하고

김재은(1974)이 번안한 의미미분척도를 실시하였다. 이 척도는 10개의 형용사들이 쌍을 이루고 있는 양극척도로 7점 Likert 척도로 제작되었으며, 평가, 역능, 활동의 3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평가 차원은 깨끗하다-더럽다, 추하다-아름답다, 좋다-나쁘다, 멀다-가깝다의 4문항, 역능 차원은 넓다-좁다, 작다-크다, 연하다-단단 하다는 3문항, 활동차원은 빠르다-느리다, 무디다-날카롭다, 이르다-늦다의 3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이중 그 의미가 비교적 모호하다고 평가된 활동차원을 제외하고 평가와 역능의 두 차원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같은 문항이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는 아버지의 경우 평가 .87, 역능 .52, 어머니의 경우 평가 .80, 역능 .40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척도**

양옥경(2001)이 개발한 24문항 척도를 양옥경과 김연수(2007)가 15문항의 축약형으로 변형한 가족관계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구성요소는 정서친밀영역과 수용존중영역의 2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친밀영역은 총 10문항으로 가족원간의 응집성, 유대 및 연대의식, 친밀, 밀착정도를 감정과 행동적인 측면에서 측정하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수용존중영역은 가족원간의 수용, 지지, 상호존중 등 가족 내의 긍정적 의사소통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들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항상 그렇다)사이의 Likert 척도 상에서 응답한다. 양옥경과 김연수(2007)의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는 정서친밀영역 .92, 수용존중 .84, 전체척도는 .93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친밀영역 .95, 수용존중 .86, 전체 척도는 .91로 나타났다.

### 주관적 안녕감 척도

주관적 안녕감은 삶의 만족척도(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와 정서경험빈도 척도 두 가지로 측정하였다. 삶의 만족척도는 Diener, Emmons, Larsen와 Griffin(1985)이 개발하고 조명한과 차경호(1998)가 한국판으로 번역한 것으로 1점(매우 반대한다)에서 7점(매우 찬성한다) 사이의 Likert 척도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86이었다. 정서빈도 척도는 조명한과 차경호(1998)가 사용하고 설진미(2006)가 변형한 것으로 정적 정서경험 빈도와 부적정서경험 빈도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있으며, 한 달 동안 해당정서를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 1점(전혀 없다)에서 7점(항상) 사이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각 하위 요인은 4개의 정서(정적 정서: 기쁨, 자부심, 애정, 만족감, 부적 정서: 공포, 화냄, 슬픔, 죄책감)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정적 정서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81, 부적 정서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70이었다.

### 분석방법

SC-IAT와 각 척도들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았다. 또한 SC-IAT에서 측정한 값이 0에서부터 유의미하게 떨어져 그 반응분포가 고르게 나타나는지 one sample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아버지와 의 관계성 만족도가 어머니와의 관계성 만족도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존 타당도 검증을 위해 외현적 관계성 만족 척도, 부모 애착척도와 의미미분척도와의 상관, 예언 타당도 검증을 위해 가족관계척도와 주관적 안녕감 척도들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SPSS 15.0을 사용하였다.

## 결 과

### 자료의 제거와 교정

SC-IAT에서 블럭 1과 블럭 3은 자료에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반응속도가 350ms보다 빠르거나 무응답인 경우 제거하였다. 또한 블럭 2와 4의 각 51회 시행에서 일반적으로 느린 반응시간을 보이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행 결과는 극단치(outlier)로 보고 제거하여 49회의 반응시간만 분석에 사용하였다. 오답 반응의 값은 각 블럭의 평균값에 400ms를 더한 값으로 대체하였다.

### SC-IAT의 신뢰도

SC-IAT의 신뢰도는 Karpinski와 Steinman (2006)의 방법에 따라 블럭 2의 내적 신뢰도와 블럭 4의 내적 신뢰도를 계산한 뒤, 두 값의 평균으로 계산하였다. 어머니에 대한 SC-IAT의 경우 블럭 2의 내적 신뢰도는 .85, 블럭 4의 내적 신뢰도는 .87로 평균 신뢰도는 .86로 나타났다. 아버지에 대한 SC-IAT의 경우 블럭 2의 내적 신뢰도는 .82, 블럭 4의 내적 신뢰도는 .88, 평균 신뢰도는 .85로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d* 값의 계산과 분석

암묵적 관계성 만족도는 Karpinski와 Steinman (2006)의 방법에 따라 블럭 4의 평균 반응시간에서 블럭 2의 평균 반응시간을 뺀 값에서 전

표 3. 암묵적 관계성 만족도(*d*)와 외현적 관계성<sup>1)</sup> 만족도의 평균, 표준편차와 최대 및 최소값

관계성 만족도		평균( <i>SD</i> )	최소값	최대값	paired <i>t</i>
암묵적 측정	부 <i>d</i>	.40(.46)	-.89	1.52	-2.07*
	모 <i>d</i>	.54(.44)	-.66	1.44	
외현적 측정	부	4.75(1.60)	1.50	7.00	-7.62**
	모	5.88(1.07)	2.00	7.00	

\*\*  $p < .01$ , \*  $p < .05$  (2-tailed)

체 정답 반응의 표준편차로 나눈 *d* 값으로 계산하였다. *d* 값이 클수록 관계성 만족감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d* 값을 분석한 결과, 부 *d* 값의 평균은 .40, 최소값은 -.89, 최대값은 1.52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암묵적 관계성 만족도는 0)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긍정적으로 느끼는 편으로 나타났다. 모 *d* 값의 평균은 .54, 최소값은 -.66, 최대값 1.44로 아버지-자녀 관계 암묵적 관계성 만족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암묵적 관계성 만족도 또한 긍정적으로 느끼는 편으로 나타났다. paired *t*-test 결과  $t = -2.07(p < .05)$ 로 아버지에게 대한 *d* 값보다 어머니에 대한 *d* 값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암묵적 관계성 만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현적 관계성 만족도에서도 paired *t*-test 결과  $t = -7.62(p < .01)$ 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관계성 만족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고).

*d* 값의 고른 분포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one sample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자녀 관계 암묵적 관계성 만족도 *d* 값은  $t =$

1) *d* 값이 0이면 관계성 만족과 불만족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간 값이라고 볼 수 있음. 0보다 큰 경우 관계성 만족이 높은 것, 0보다 작은 경우 관계성이 불만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임.

8.56( $p < .01$ ), 어머니-자녀 관계 암묵적 관계성 만족도 *d* 값은  $t = 12.34(p < .01)$ 로 모두 유의미하게 0에서 떨어진 고른 분포를 보였다.

아버지에 대한 *d* 값과 어머니에 대한 *d* 값의 상관분석 결과  $r = .31(p < .01)$ 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또한 아버지-자녀 관계 외현적 관계성 만족과 어머니-자녀 관계 외현적 관계성 만족을 상관분석 한 결과,  $r = .39(p < .01)$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independent *t*-test와 일원 변량 분석 결과, 두 *d* 값은 모두 성별, 부모동거 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상관분석

부모-자녀 관계 암묵적 관계성 만족척도의 공존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외현적 관계성 만족척도, 부모애착척도, 그리고 의미미분척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버지-자녀 관계 암묵적 관계성 척도(부 *d*)의 경우 외현적 관계성 만족척도와 상관  $r = .41(p < .01)$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애착척도 하위 요인간의 상관은 신뢰감  $r = .51(p < .01)$ , 의사소통  $r = .42(p < .01)$ , 소외감  $r = .44(p < .01)$ 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의미미분척도의 하위 요인 간 상관은 평가  $r = .49$

표 4. 아버지-자녀 관계 암묵적 관계성 만족도(*d*)와 외현적 관계성척도, 애착척도, 의미미분척도 간의 상관

	부 <i>d</i>	관계성	신뢰감	의사소통	소외감	평가	역능
부 <i>d</i>	1						
관계성 <sup>2)</sup>	.41**	1					
신뢰감	.51*	.85**	1				
의사소통	.42**	.84**	.90**	1			
소외감 <sup>3)</sup>	.44**	.73**	.77**	.73**	1		
평가 <sup>4)</sup>	.49**	.83**	.83**	.74**	.69**	1	
역능	.27**	.38**	.44**	.36**	.31**	.47**	1

\*\*  $p < .01$ , \*  $p < .05$  (2-tailed)

표 5. 어머니-자녀 관계 암묵적 관계성 만족도(*d*)와 외현적 관계성척도, 애착척도, 의미미분척도 간의 상관

	모 <i>d</i>	관계성	신뢰감	의사소통	소외감	평가	역능
모 <i>d</i>	1						
관계성	.06	1					
신뢰감	.14	.80**	1				
의사소통	.07	.69**	.76**	1			
소외감	.20*	.57**	.67**	.52**	1		
평가	.15	.76**	.71**	.57**	.59**	1	
역능	-.11	.17	.28**	.19*	.11	.32**	1

\*\*  $p < .01$ , \*  $p < .05$ (2-tailed)

( $p < .01$ ). 역능  $r = .27$ ( $p < .01$ )로 나타났다(표 4 참고).

어머니-자녀 관계 암묵적 관계성 척도(모 *d*)의 경우 외현적 관계성 만족척도와 상관인  $r = .06$ (*n.s.*)로 유의하지 않았다. 애착척도 하위 요인간의 상관은 신뢰감  $r = .14$ (*n.s.*), 의사소통  $r = .072$ (*n.s.*), 소외감  $r = .20$ ( $p < .05$ )으로 소외감 하위 척도와 약하지만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의미미분 척도의 하위 요인인 평가와 역능 또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표

5 참고).

부모-자녀 관계 암묵적 관계성 만족 척도의 예언 타당도 검증을 위해 가족관계척도, 삶의 만족 척도, 정적 정서빈도 척도, 그리고 부정 정서빈도 척도와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버지-자녀 관계 암묵적 관계성 만족 척도와 가족관계척도의 하위 요인 간 상관은 정서 친밀  $r = .25$ ( $p < .01$ ), 수용존중  $r = .33$ ( $p < .01$ )으로 모두 유의하였다. 주관적 안녕감 측정치인 삶의 만족,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는 모두



표 6. 부모-자녀 관계 암묵적 관계성 만족도(d)와 가족관계척도, 삶의 만족 척도, 정서빈도 척도간의 상관

	아버지						어머니					
	d	정서 친밀	수용 존중	삶의 만족	긍정 정서	부정 정서	d	정서 친밀	수용 존중	삶의 만족	긍정 정서	부정 정서
d	1						1					
정서친밀	.25*	1					.14	1				
수용존중	.33**	.72**	1				.05	.72**	1			
삶의만족	.19	.28**	.31**	1			.05	.29**	.31**	1		
긍정정서	.12	.37**	.30**	.70	1		.05	.37**	.30**	.79**	1	
부정정서	-.16	-.17	-.31**	-.32**	-.21*	1	-.02	-.17	-.31**	-.32**	-.21*	1

\*\*  $p < .01$ , \*  $p < .05$  (2-tailed)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자녀 관계 암묵적 관계성 만족 척도는 가족관계척도의 하위 요인인 정서친밀과 수용존중, 주관적 안녕감 측정치인 삶의 만족,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에서도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요약하면, 아버지-자녀 관계 암묵적 관계성

만족척도는 외현 척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며 적절한 공준타당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언타당도를 위한 상관 분석에서는 가족관계척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자녀 관계 암묵적 관계성 만족 척도는 외현적 관계성 만족척도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다른 외현 척도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아, 외현 척도들과는 측정 차원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는 자기 결정 이론(Deci & Ryan, 2000)에서 인간 생존 및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보는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 중, 집단주의 문화에 속해있는 한국문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관계성(한소영, 신희천 2007; Bao & Lam, 2008; Markus & Kitayama, 1991)을 암묵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개발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았다. 특히 한국의 유교문화에 바탕을

- 2) 관계성은 외현 척도로 측정된 관계성 만족도를 뜻함. 신뢰감, 의사소통, 소외감은 부모애착척도(IPPA-R)의 하위 요인이며, 평가, 역능은 의미미분척도의 하위 요인으로,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점수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점수가 각각 산출되었으며 부 d 값과는 아버지 대상 점수, 모 d 값과는 어머니 대상 점수를 사용하여 상관 분석한 것임. 가족관계척도 하위 요인인 정서친밀과 수용존중 및 주관적 안녕감 측정치인 삶의 만족,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구분 없이 하나의 점수로 산출됨.
- 3) 소외감 점수는 역코딩 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덜 느끼는 것을 의미함.
- 4) 평가와 역능 점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끼는 것을 의미함.

둔 가족주의 문화, 사회적 역할을 중시하고 체면을 지키려는 문화(장성숙, 2003, 2007)로 인해 부모-자녀 관계에서 느끼는 생각, 기대, 감정 등이 외현적 척도에서 왜곡되어 나타나기가 쉽다고 보고 부모-자녀 관계 맥락에서의 암묵적 관계성 만족 척도를 개발하기로 하였다.

연구자들은 Karpinski와 Steinman(2006)이 개발한 SC-IAT를 이용하여 암묵적 관계성 만족 척도를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한소영과 신희천(2009)의 연구에서 개발 및 타당화 된 부모-자녀 기본 심리적 욕구 척도의 하위요인인 관계성 문항과 질적 조사를 바탕으로 선별된 단어를 이용하여 SC-IAT에 사용할 속성 자극을 선별하였으며, SC-IAT 제작을 위해 심리학 실험 프로그램인 E-Prime(Schneider et al., 2002a, 2002b)을 사용하였다. 연구자들은 대학생 118명을 대상으로 설문 및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문제가 있는 9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109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암묵적 관계성 만족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고, one sample *t*-test와 paired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공존 타당도 검증을 위해 부모애착척도, 의미미분척도, 가족관계척도, 삶의 만족 척도, 정서빈도 척도와 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적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에 대한 SC-IAT 내적 신뢰도는 .86, 아버지에 대한 SC-IAT의 내적 신뢰도는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Karpinski와 Steinman(2006)의 연구에서 SC-IAT의 내적 신뢰도가 .61~.69사이를 보인 것과 일반적으로 IAT의 내적 신뢰도가 .60대를 나타내는 것(Greenwald et al., 2003; Nosek, Greenwald, & Banaji, 2005)과 비교했을 때 매우 우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d* 값으로 환산한

암묵적 관계성 만족 척도의 one sample *t*-test 결과 아버지에 대한 *d* 값과 어머니에 대한 *d* 값은 모두 유의미하게 0에서 떨어진 고른 분포를 보여,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암묵적 관계성 만족 척도가 신뢰성 있는 도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paired *t*-test 결과 아버지보다 어머니에 대한 암묵적 관계성 만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외현적 관계성 만족 척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공존타당도를 위한 상관분석결과, 아버지-자녀 관계 암묵적 관계성 척도는 외현적 관계성 만족척도, 애착척도 하위 요인인 신뢰감, 의사소통, 소외감, 의미미분 척도의 하위 요인인 평가, 역능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자녀 관계 암묵적 관계성 척도는 애착척도의 하위 요인인 소외감과 약하지만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나, 애착척도의 다른 하위 요인과 의미미분 척도 하위요인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예언타당도를 위한 상관분석에서 아버지-자녀 관계 암묵적 관계성 척도는 주관적 안녕감 측정치인 삶의 만족,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 가족관계척도의 하위 요인인 정서친밀, 수용존중과는 적절하게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어머니-자녀 관계 암묵적 관계성 척도는 주관적 안녕감 척도들과 가족관계척도의 모든 하위요인간의 상관분석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공존타당도 검증을 위한 외현척도와 의 상관 분석에서 아버지-자녀 관계 암묵적 관계성 만족 척도는 전반적으로 적절한 상관이 나타났으나, 어머니-자녀 관계 암묵적 관계성 척도는 유의미한 상관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아버지-자녀 관계에 대한 참가자들의 반

응에서는 외현척도와 내현척도가 어느 정도 유사한 점이 있고 두 측정도구의 측정 차원에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어머니-자녀 관계에 대한 반응에서는 그 응답 경향이 매우 다르거나 측정 차원이 상당히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암묵적 측정은 연구나 측정방법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몇몇 연구에서 외현척도와 .10 ~ .20 사이의 매우 낮은 상관을 보이기도 한다(Fazio, Jackson, Dunton, & Williams, 1995; Kawakami & Dovidio, 2001; Greenwald et al., 1998; Rudman & Kilianski, 2000). 하지만 관계에 따른 암묵적 측정을 시도한 연구는 없었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가 설명된 바도 없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은 우선 정신 역동적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어머니에 대한 감정과 아버지에 대한 감정의 발달과 유지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 생애초기에 1차 양육자가 되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생존과 직결되어 있고 이것이 성인기까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Ende, 1983).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유아에게 처음에는 어머니의 가슴이, 나중에는 어머니가 전우주이며 세상이 된다. 또한 만 한 살까지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생긴다(이동식, 2003, 2004). 이로 인해 아동기부터 유아는 낯선 것을 연구하는 것과 똑같이 어머니의 기분을 예언하기 위하여 다양한 어머니의 얼굴을 연구하며, 어머니의 기분이 불쾌해 진다면 자신의 개인적 욕구를 후퇴시키거나 철수하는 등의 방어기제를 발휘하여 자신의 내면을 편안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억압이 발생하기 쉽다(이동식, 2004; 이재훈, 1997). 반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어머니와의 관계보다는 접촉이

빈번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고 객관적이 되기 쉬우므로 여기서 느끼는 감정과 생각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것보다 덜 억압된다(이근후, 최종신, 박영숙, 1992). 본 연구 결과에서 외현적 척도와 암묵적 척도 모두에서 평균적으로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관계성이 더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은 피검사자들이 대부분의 경우 1차 양육자가 되는 어머니에 대해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더 가깝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외현적·암묵적 측정에서 모두 더 낮았던 아버지에 대한 관계성이 외현적 척도와 암묵적 척도 간의 상관성이 유의미한 반면, 어머니에 대한 관계성은 외현적 척도와 암묵적 척도 간의 상관성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생애 초기부터 발달시켜온 어머니에 대한 감정억압이나 방어기제 등이 반영되어, 외현적 측정에서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이 무의식적으로 왜곡되어 나타나 암묵적 측정과 상관이 낮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일찍이 Epstein과 Morling(1995)은 인지 경험적 자기 이론(Cognitive Experiential Self Theory; CEST)에서 사람들은 두 개의 분리되어 상호작용하는 심리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하나는 인지적·이성적 시스템(cognitive·rational system)으로 언어적, 논리적 원리에 따라 의식적인 수준에서 작용하며, 다른 하나는 경험적 시스템(experiential system)으로 이는 무의식적 수준에서 작용한다. 이들은 대부분 중요한 감정적 경험은 경험적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데, 이는 “광범위하게 배어나와” 사고, 감정, 행동에 영향을 주며, 자기보고로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인지 경험적 자기 이론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아마도 어머니와의 관계와 같은 중요한 감정적 경험은 경험적 시스

템 속에 더욱 깊이 자리하고 있기에 외현적 측정과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두 번째로 고려할 점은 측정도구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환경적 요인이다. Mode model (Nosek, 2002)에서는 암묵적 측정치와 외현적 측정치간의 상관은 매번 다를 수 있는데, 이는 ‘동기’와 ‘신중하게 결정할 시간과 기회’가 얼마나 있으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 모델에 따르면, 사람들이 심리측정에 대한 동기와 시간이 충분할 경우 자연발생적 과정이 아닌 신중한 판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외현적 측정치에 정확하게 반응하게 되고 암묵적 측정치와 외현적 측정치의 상관은 낮아진다. 하지만 동기와 시간이 충분치 않을 경우, 반응은 더욱 자동적이 되면서 암묵적 측정치의 예언타당도가 더 높아지고 외현적 측정치와의 상관이 높아진다 (Fazio & Olson, 2003). 본 연구의 실험 설계에서 모든 피험자가 설문 실시 후, 어머니에 대한 SC-IAT를 먼저 실시하고, 아버지에 대한 SC-IAT를 이후에 실시하였다. 약 1시간에 걸쳐 실시한 설문과 실험 과정을 거치면서 피험자들의 참여 동기가 실험 후반으로 갈수록 저하되어, 먼저 실험한 어머니에 대한 SC-IAT에서는 동기가 더 높고, 가장 나중에 실험한 아버지에 대한 SC-IAT에서는 동기가 낮은데서 상관의 차이가 기인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순서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도록 실험 설계하여 후속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에서 두드러지는 또 하나의 현상은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자녀 관계 암묵적 관계성 만족도에서 가족관계척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며 예언타당도가 일부 검증되었으나,

부·모-자녀 관계 암묵적 관계 척도 모두 주관적 안녕감 척도인 삶의 만족과 정서빈도 척도와 암묵적 척도간의 상관이 유의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 행동에 대한 평가 대신에 외현척도만으로 예언타당도를 검증 한데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Karpinski와 Steinman(2006)은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의 선호도를 측정하는 SC-IAT 연구에서 예언타당도 검증을 위해 즉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의 선택 여부를 측정치에 넣었으며, 자기 존중감의 암묵적 측정 연구에서는 자기 소유 물품, 집단에 대한 기호(Greenwald & Banaji, 1995), 또는 자기 이름이 들어간 알파벳에 대한 선호도(Dijksterhuis, 2004)를 측정하는 등, 실제 행동 측정치를 변인으로 사용한 바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관찰자가 실험 참여자를 직접 관찰하고 객관적으로 평정한 측정치나, 암묵적 삶의 만족 척도(Implicit Life Satisfaction Scale; Kim, 2004)와 같은 암묵적 측정치를 함께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암묵적 측정도구의 예언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본 연구 결과에 자기기만 정도나 사회적 바람직성 등의 개인적 성향이 영향 미쳤을 수 있으며, 실험대상이 한 지역의 특정 전공과목을 듣는 대학생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 실험참여자의 약 70%가 여성인 점, 실험 참여자 중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를 경험한 경우를 배제시키지 못한 점 등으로 인해 그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 있어 신중해야 한다. 또한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검사 및 실험 실시에서 순서효과를 배제시키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 될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기만이나 사회적 바람직성을 측정하여 그 효과를 배제하고, 실험과 검사에서 순서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상대균형화(counter balan

cing)를 실시하며, 실험 대상과 맥락을 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연구의 제한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일반적 외현 척도에서 나타나는 맥락효과(Kim, 2006)를 크게 배제시킬 수 있는 암묵적인 심리적 측정이 가능한 도구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부모에 대한 측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암묵적 측정과 외현적 측정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어머니에 대한 암묵적 측정과 외현적 측정에서는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던 본 연구 결과는 암묵적 척도의 유용성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1차 양육자와 같이 매우 중요한 관계에 있는 타인 일수록 감정 억압이 크게 일어나 외현적 측정에서 왜곡이 크기 때문에 외현적 측정방식 보다 암묵적 측정이 더 정확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후 연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암묵적 긍정적 및 부정적 감정이나 실제 행동 측정치를 사용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외현적 측정과 암묵적 측정의 정확성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Steffens과 König(2006)의 연구에서는 암묵적 측정의 상대적 우수성이 입증되기도 하였다. 연구자들은 Big Five 요인 중 외향성의 정도를 IAT로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자발적 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외현적인 척도들 보다 IAT로 측정된 외향성의 예측력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성격 변인을 측정에서 암묵적인 측정이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대부분의 IAT 연구와 달리 편견, 고정관념 또는 자존감(안상수, 김혜숙, 2003; Greenwald & Farnham, 2000; Greenwald et al., 2002, Greenwald & Banaji, 1995)이 아닌 실제 친밀한 대인관계 상황인 부모-자식 관계에서

경험하는 관계성을 측정한 최초의 연구이며, 특히 SC-IAT를 이용하여 두 표적간의 상대적 점수가 아닌 각각의 점수를 산출함으로써 임상 및 상담 분야에 쉽게 응용하고 연구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내담자들은 많은 경우 가족 특히 부모와 관련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담자의 부모에 대한 태도를 탐색하거나 내담자의 부모에 대한 기대나 감정을 정확히 살펴보고 다루는 것이 치료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이동식, 2003).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부모, 특히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억압되어 있어 이러한 감정을 다루고 건강한 분리로 나아가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이근후 등, 1992).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후속연구의 개정과정을 통해 의식적인 수준이 아닌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느끼는 솔직한 부모에 대한 감정을 측정함으로써 억압이 심하여 그 치료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들을 위한 하나의 대안적인 심리측정도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광은 (2005). 성인 애착 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 및 부부 갈등 대처 전략.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707-734.
- 김재은 (1974). *한국가족의 심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노영남 (1982).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심리적 거리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4), 205-223.
- 방희정, 조혜자, 조숙자, 김현정 (2005). 한국 남녀대학생의 “개인”과 “관계”의 암묵적 표상.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2), 189-

- 209.
- 설진미 (2006). 대학생의 지속적인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근석 (2000). 체면과 문화적 자기지향이 자기노출에 미치는 영향 - 상담에서의 함의 탐색. *사회과학연구*, 11, 113-136.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안상수, 김혜숙 (2003). 내·외집단 규범정보가 양성평등정책 및 내현적 성편견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2), 51-75.
- 양옥경 (2001). 가족관계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8, 119-147.
- 양옥경, 김연수 (2007). 축약형 가족관계척도 구성과 타당도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2), 103-129.
- 옥 정 (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지각된 유능감(Perceived Competence)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근후, 박영숙, 문홍세 (1999). 인격형성에 미치는 아동기 감정양식. 서울: 하나의학사.
- 이근후, 최종진, 박영숙 (1992). 정신역동적 정신치료. 서울: 하나의학사.
- 이동식 (2003). 노이로제의 이해와 치료. 서울: 일지사.
- 이동식 (2004). 현대인의 정신건강. 서울: 한강수.
- 이석재, 최상진 (2001). 체면지향행동의 이원구조모델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65-83.
- 이재훈 (1997). 놀이와 현실.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 임은미 (2006). 사이버 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장성숙 (2003). 한국문화와 현실역동상담의 상담자-내담자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치료*, 15(2), 147-160.
- 장성숙 (2007). 가족주의와 현실역동상담의 일체적 관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523-257.
- 장휘숙 (2007). 아동발달. 서울: 박영사.
- 정연옥 (2005). 성인기 애착유형, 부정적 인지 왜곡 및 우울수준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4(1), 167-184.
- 조명한, 차경호 (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48집, 집문당.
- 조숙자, 방희정, 조혜자, 김현정 (2006). 대학생의 친밀-실리 관계에 대한 암묵적 표상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9(1), 127-147.
- 최연실 (1993).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체계유형과 가족 내 심리적 거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159-175.
- 한소영, 신희천 (2007).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의 다집단 요인분석과 잠재평균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447-465.
- 한소영, 신희천 (200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에서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치료*, 21(2), 2-(출간 준비중).
- Allard, G. Butler, J. Faust, D., & Shea, M. T. (2000). Errors in hand scoring objective personality test: The case of the Personality Diagnostic Questionnaire-Revised(PDQ-R).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6, 304-308.

- Argyle, M. (1987). *The Psychology of Happiness*. London: Nethuen.
- Armsden, G., & Greenberg, M.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 - 454.
- Bao, X., & Lam, S. (2008). Who makes the choice? Rethinking the role of autonomy and relatedness in Chinese children's motivation. *Child Development*, 79, 269-283.
- Bar-Anan, Y., Liberman, N., & Trope, Y. (2006). The Association Between Psychological Distance and Construal Level: Evidence From an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35(4), 609-622.
- Bar-Anan, Y., Liberman, N., Trope, Y., & Algom, D. (2007). Automatic processing of psychological distance: Evidence from a Stroop task.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36(4), 610-622.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226-244.
- Boschen, M. J., Parker, I., & Neumann, D. L. (2007). Changes in implicit associations do not occur simultaneously to Pavlovian conditioning of physiological anxiety response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1(6), 788-803.
- Bowlby, J. (1969). *Attachment*. NY: Basic.
- Brendl, C. M., Markman, A. B., & Messner, C. (2005). Indirectly measuring evaluations of several attitude objects in relation to a neutral reference poin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1(4), 346-368.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5).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In A. Simpson & W. A.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46-76). New York: Guilford Press.
- Butcher, J. N., Graham, J. R., Ben-Porath, Y. S., Tellegen, Y. S., Dahlstrom, W. G., & Kaemmer, B. (2001).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2: Manual for administration and scoring*(rev. ed.).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utcher, J. N., Perry, J., & Hahn, J. (2004). Computers in clinical assessment: Historical developments, present status, and future challenge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0(3), 331-345.
- Butzel, J. S., & Ryan, R. M. (1997). The dynamics of volitional reliance: A motivational perspective on dependence, independence, and social support. In G. R. Pierce, B. Laker, I. G. Sarason, & B. R. Sarason (Eds.), *Sourcebook of Social Support and Personality*(pp.49-67). New York: Plenum.
- Casper, F. (2004). Technological developments and applications in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Introduct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0(3), 221-238.
- Chirkov, V. I., & Ryan, R. M. (2001). Parent and teacher autonomy-support in Russian and U. S. Adolescents: Common effects on well-being and academic motivation. *Journal of Cross Cultural Psychology*, 32, 618-635.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 Deci, E. L., & Vansteenkiste, M. (2004).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basic need satisfaction: Understanding human development in positive psychology. *Ricerche di Psicologia*, 27, 17-34.
- De Houwer, J. (2003). The Extrinsic Affective Simon Task. *Experimental Psychology*, 50(2), 77-85.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ijksterhuis, A. (2004). I like myself but I don't know why: Enhancing Implicit self-esteem by subliminal evaluative conditio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2), 345-355.
- Drigotas, S. M., & Rusbult, C. E. (1992). Should I stay and should I go?: A dependence model of break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62-87.
- Egloff, B., & Schmukle, S. C. (2002). Predictive validity of an implicit association test for assessing anxie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6), 1441-1455.
- Ende, R. N. (1983). *Rene Spitz: Dialogues From Infancy*. NY: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Epstein, S., & Morling, B. (1995). Is the self motivated to do more than enhance and/or verify itself? In M. H. Kernis (Ed.), *Efficacy, agency, and self-esteem*(pp.9-30). New York: Plenum.
- Fazio, R. H., & Olson, M. A. (2003). Implicit measures in social cognition research: Their meaning and us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4, 297-327.
- Fazio, R. H., Jackson, J. R., Dunton, B. C., & Williams, C. J. (1995). Variability in automatic activation as an unobtrusive measure of racial attitude: A bona fide pipelin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6), 1013-1027.
- Fray, P. J., Robbins, T. W., & Sahakian, B. J. (1996). Neuropsychological applications of CANTAB.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11, 329-336.
- Gerber, G. L., & Kaswan, J. (1971). Expression of emotion through family grouping schemata, distance, and interpersonal focu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6(3), 370-377.
- Greenwald, A. G., & Banaji, M. R. (1995). Implicit social cognition: Attitude, self-esteem, and stereotype. *Psychological Review*, 102, 4-27.
- Greenwald, A. G., & Farnham, S. D. (2000).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to Measure Self-Esteem and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6), 1022-1038.
- Greenwald, A. G., Banaji, M. R., Rudman, L. A., Farnham, S. D., Nosek, B. A., & Mellott, D. S. (2002). A unified theory of implicit attitudes, stereotypes, self-esteem, and self-concept. *Psychological Review*, 109(1), 3-25.



- Greenwald, A. G., McGhee, D. E., & Schwartz, J. L. K. (1998).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Cogn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6), 1464-1480.
- Greenwald, A. G., Nosek, B. A., & Banaji, M. R. (2003). Understanding and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I. An Improved Scoring Algorith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2), 197-216.
- Griffin, D. W., & Bartholomew, K. (1994). Model of the self and other: Fundamental dimensions underlying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3), 430-445.
- Haefffel, G. J., Abramson, L. Y., Brazy, P. C., Shah, J. Y., Teachman, B. A., & Nosek, B. A. (2007). Explicit and implicit cognition: A preliminary test of a dual-process theory of cognitive vulnerability to depress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5(6), 1155-1167.
-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Wiley.
- Karpinski, A., & Steinman, R. B. (2006). The Single Category Implicit Association Test as a Measure of Implicit Social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1), 16-32.
- Kawakami, K., & Dovidio, J. F. (2001). The reliability of implicit stereotyping. *Personality and Social Bulletin*, 27(2), 212-225.
- Kernis, M. H., & Paradise, A. W. (2004). Distinguishing between secure and fragile forms of high self-esteem. In E. L. Deci, & R. M. Ryan (Eds.),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pp.340-360). New York: The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Kim, D. (2004). The implicit life satisfaction measure.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7, 2136-262.
- Kim, D. (2006). Implicit social cognition and culture: Explicit and implicit psychological acculturation, and distress of Korean-American young adult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5(1), 1-32.
- Kwan, V. S. Y., Bond, M. H., & Singelis, T. M. (1997). Pancultural explanations for life satisfaction: Adding relationship harmony to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038-1051.
- La Guardia, J. G., Ryan, R. M., Couchman, C. E., & Deci, E. L. (2000). Within-person variation in security of attachment: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on attachment, need fulfillment,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367-384.
- Markus, H. R., & Kitayama, S. K.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Niemiec, C. P., Lynch, M. F., Vansteenkiste, M., Bernstein, J., Deci, E. L., & Ryan, R. M. (2006).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autonomous self-regulation for college: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on socialization. *Journal of Adolescence*, 29, 761-775.
- Nisbett, R. E., & Wilson, T. D. (1977). Telling more than we can know: Verbal reports on mental processes. *Psychological Review*, 84, 231-259.

- Nosek, B. A. (2002). *Moder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mplicit and explicit attitude*. PhD thesis. Yale University.
- Nosek, B. A., & Banaji, M. R. (2001). The GO/NO-GO Association Task. *Social Cognition*, 19(6), 625-664.
- Nosek, B. A., Greenwald, A. G., & Banaji, M. R. (2005). Understanding and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II. Method variables and construct valid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 166-180.
- Osgood, C. E., Suci, G. J., & Tannenbaum, P. H. (1957). *The Measurement of Meaning*.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O'Reilly, J. P., Tokuno, K. A., & Ebata, A. T. (1986).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Americans of Japanese and European ancestry in parental valuing of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17, 87-97.
- Penke, L., Eichstaedt, J., & Asendorpf, J. B. (2006). Single-Attribute Implicit Association Tests(SA-IAT) for the Assessment of Unipolar Constructs: The Case of Sociosexuality. *Experimental Psychology*, 53(4), 283-291.
- Prager, K. J., & Buhrmester, D. (1998). Intimacy and need fulfillment in couple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5, 435-469.
- Ratelle, C. F., Larose, S., Guay, F., & Senecal, C. (2005). Perceptions of parental involvement and support as predictors of college students' persistence in a science curriculum.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 286-293.
- Rudman, L. A., & Kilianski, S. E. (2000). Implicit and explicit attitude toward female authority. *Personality and Social Bulletin*, 26(11), 1315-1328.
- Ryan, R. M. (2005). The developmental line of autonomy in the etiology, dynamics, and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7, 987-1006.
- Ryan, R. M., & Deci, E. L. (2001). On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s: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In S. Fiske (E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141-166.
- Ryan, R. M., La Guardia, J. G., Solky-Butzel, J., Chirkov, V., & Kim, Y. (2005). On the interpersonal regulation of emotions: Emotional reliance across gender, relationships, and culture. *Personal Relationships*, 12, 146-163.
- Shaver, P. R., & Hazan, C. (1993). Adult romantic attachment: Theory and evidence.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4, 29-70.
- Schmitt, D. P., & Allik, J. (2005). Simultaneous administration of the rosenberg self-esteem scale in 53 nations: Exploring the universal and culture-specific features of global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4), 623-642.
- Schmukle, S. C., & Egloff, B. (2006). Assessing Anxiety with Extrinsic Simon Tasks. *Experimental Psychology*, 53(2), 149-160.
- Schneider, W., Eschman, A., & Zuccolotto, A. (2002a). *E-Prime reference guide*. Psychology Software Tools, Inc.
- Schneider, W., Eschman, A., & Zuccolotto, A. (2002b). *E-Prime user's guide*. Psychology Software Tools, Inc.
- Schwarz, N. & Clore, G. L. (1983). Mood,

- misattribution, and judgments of well-being: Informative and directive functions of affective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513-523.
- Schwarz, N. & Stack, F. (1999). Reports of subjective well-being: Judgemental processes and their methodological implications. In D. Kahneman, E. Diener, & N. Schwarz. *Well-being: The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pp.61-84. New York: Russell.
- Sheldon, K. M., Elliot, A. J., Kim, Y., & Kasser, T. (2001). What's satisfying about satisfying events? Comparing ten candidate psychological need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325-339.
- Sheldon, K., & Niemiec, C. (2006). It's not just the amount that counts: Balanced need satisfaction also affects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 331-341.
- Simon, R. M. (1972). Sculpting the family, *Family Process*, 11, 49-57.
- Simpson, J. A. (1990). Influence of attachment styles o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971-980.
- Soenens, B., Vansteenkiste, M., Lens, W., Luyckx, K., Goossens, L., Beyers, W., & Ryan, R. M. (2007). Conceptualizing parenting autonomy support: adolescent perceptions of promoting of independence versus promotion of volition functioning. *Developmental Psychology*, 43(3), 644-646.
- Steffens, M. C., & König, S. S. (2006). Predicting spontaneous Big Five behavior with Implicit Association Test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22(1), 13-20.
- Taylor, C. B., & Luce, K. H. (2003). Computer- and internet-based psychotherapy intervention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A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Society*, 12(1), 18-22.
- Teachman, B. A. (2007). Evaluating implicit spider fear associations using the Go/No-go Association Task.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38(2), 156-167.
- Vansteenkiste, M., Lens, W., Soenens, B., & Luyckx, K. (2006). Autonomy and relatedness among Chinese sojourners and applicants: Conflictual or independent predictors of well-being and adjustment? *Motivation and Emotion*, 30, 273-282.
- Wiers, R. W., Van Woerden, N., Smulders, F. T. Y., & De Jong, P. J. (2002). Implicit and explicit alcohol-related cognitions in heavy and light drink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1(4), 648-658.

원 고 접 수 일 : 2008. 11. 8

수정원고접수일 : 2009. 3. 16

게 재 결 정 일 : 2009. 5. 16

## **Implicit Measure of Relatedness Satisfaction in Parent-Child Relationships**

**Heecheon Shin**

**Soyoung Han**

**Wookseok Yang**

Ajou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develop the Implicit Relatedness Satisfaction Scale(IRSS) i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to validate the scale. The implicit scale was developed as the Single Category Implicit Association Test(SC-IAT). The results of the internal reliability analysis and t-tests showed that the implicit scale was highly reliable.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implicit measure and the explicit measures of the relatedness satisfaction in mother-child relationships were not significant, though those in father-child relationships were significant, which implied that feelings toward mother are distorted unconsciously more than feelings toward father are. Finally, the concurrent validity and predictive validity of the IRSS, implications of the development of the IRSS, and suggestion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SC-IAT, the implicit measure, basic psychological need, relatedness, parent-child relationships